



디저트의 나라 프랑스, 차 소비 동향



레마르모트(Les Marmottes)
가을-겨울 허브 종류 인퓨전 차 세트

자료 <https://www.les2marmottes.fr>

엘레판트(Elephant)
유기농울금생강인퓨전차

자료 <https://courses.monoprix.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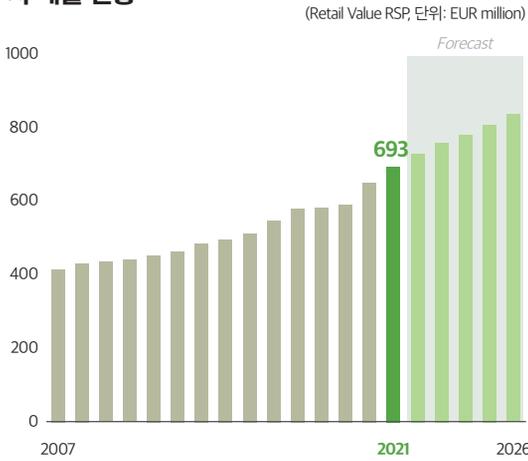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는 동안 영국 및 유럽에선 웰빙, 유기농 음료와 식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특히 마시는 차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10년 사이 2.8%나 증가했다고 전한다. 유럽에서 차는 역사적으로 16세기 중반, 포르투갈인과 네덜란드인들을 통해 전파되었으며, 프랑스에는 1630년경 당시 국무총리였던 줄스 마자랑(Jules Mazarin)이 왕을 치료하기 위해서 도입함에 따라 유통되기 시작했다.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마시고 세계에서 오래된 음료 중 하나인 차. 차 소비의 강자 영국을 넘어 디저트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에서의 차 소비 동향은 어떤지 알아보려고 한다.

프루스트의 마들렌(Madelaine de Proust)

프랑스의 전통적인 차 문화는 작가 마셀 프루스트(Marcel Proust)의 저서 『프루스트의 마들렌』에서 엿볼 수 있다. 이 책의 첫 부분은 저자가 자신의 어머니가 타준 따뜻한 차에 마들렌을 적시면서 어릴적 행복한 추억을 떠올리며 시작한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프랑스에서의 차는, 영국의 애프터눈 티(afternoon tea)처럼 달콤한 케이크, 과자 등과 함께 곁들여 오후 간식시간에 마시며 이를 '구떼(goûter)'라 부른다. 또한 저녁식사 후 자기 전 디톡스, 휴식을 위해 인퓨전 차를 마시는 문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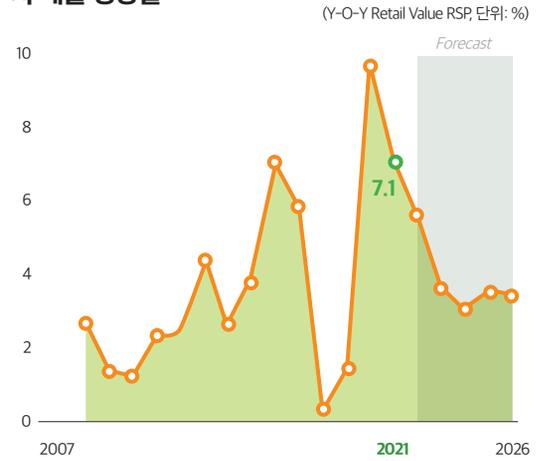


차 매출 현황



자료 Euromonitor

차 매출 성장률



자료 Euromonitor

전통적 차 문화의 현대적 갈바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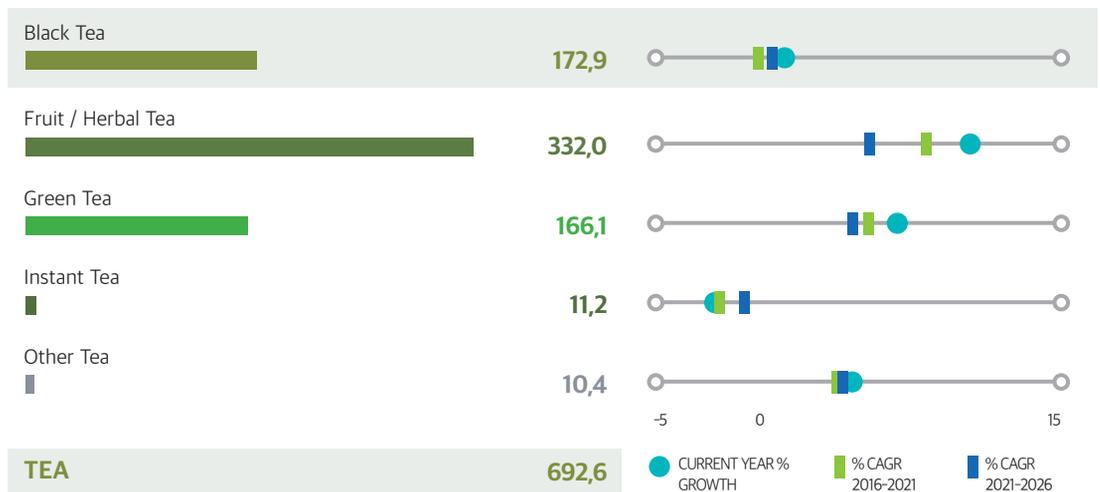
이렇듯 하루 크게 두 번 차를 마시던 프랑스에서도 코로나19를 겪으며 웰빙, 건강 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그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차 시장 규모와 판매가치가 2019년~2022년도 사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녹차, 홍차로 차 종류가 제한적이었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최근엔 건강, 특히 면역체계나 신진대사를 강화해줄 수 있는 과일, 식물잎이나 천연성분이 들어간 질 좋은 유기농 차를 선호하는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 대표 차 유통업체 레마르모트(Les Marmottes), 엘레펀트(Elephant)는 레몬, 생강이나 울금 성분이 함유된 차를 새롭게 내세우고 다른 많은 유통업체들도 다양한 블렌딩 차를 개발 및 판매하는 추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과일/허브티 수요 증가와 품목 리테일 판매가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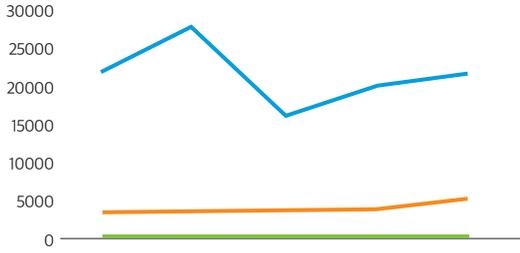
(Retail Value RSP, 단위: EUR million, %)



자료 Euromonitor

프랑스 차 수입 동향

(단위 : 1천 \$)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중국 | 22,322 | 28,180 | 16,688 | 20,586 | 22,022 |
| 일본 | 3,530 | 3,814 | 3,982 | 4,158 | 5,443 |
| 한국 | 106 | 135 | 108 | 177 | 307 |

자료 Eurostat (그래프로 재구성)

한편, 프랑스 차 소비자들은 이제 자신의 건강을 넘어 환경까지 생각하는 윤리환경적 소비를 추구하는 모습이다. 이 흐름에 맞춰 차 유통업체들도 차원의 배양 및 생산과정을 투명하게 소비자와 공유하고(sourcing), 플라스틱 프리(plastic-free) 티백을 개발해 환경을 고려한 패키징 전략을 펼치고 있다.

문화를 간접적으로 맛보고 이해하는 풍류, 차

프랑스에서 차는 이제 마시는 것을 넘어서 한 나라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여행하고 경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차 유통업체들은 더 이국적이고 다양하며 새로운 향 및 색깔을 내는 여러 차를 수입하고 개발하고 있다.

對 프랑스 한국 차 수출 동향

(단위 : 1천 \$)



자료 KATI 통계 (그래프로 재구성)

이에 더해 와인 소믈리에를 넘어 이제는 차 소믈리에(tea sommelier)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대형 차 유통업체 팔레데떼(Palais des thés)에선 각종 차 종류, 마시는 방법, 차 의식 등을 가르치며 차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를 음식 및 디저트에도 활용하며 문화와 접목하고 있다. 유자나 말차를 활용한 케이크나 음식을 만드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건강을 생각하는 20~30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염소치즈나 까망베르와 같이 센 맛과 향을 지닌 치즈의 단점을 보완해줄 와인을 대신해 특정 차와의 궁합을 찾아내어 새로운 맛을 선보이고 있다.



‘팔레데떼’ 파리 18구 위치한 매장

자료 <https://www.palaisdesthes.com>

‘마리아쥬프레흐’ 파리 4구 위치한 매장

자료 <https://www.parisinfo.com>



‘팔레데떼’ 제주 녹차, 죽로차

자료 <https://www.palaisdesthes.com/fr>



‘마리아쥬프레흐’ 파리 4구 위치한 매장

자료 <https://www.mariagefreres.com/FR>



(※ 차 (HS CODE 0902) 제품의 경우에 식품으로 분류되 식품규정 확인 외에 큰 수입규제사항 없음)

프랑스 내 한국산 차의 인지도

프랑스는 주로 중국과 일본과의 차 무역이 활발한 편으로 한국과의 차 무역은 아직은 미약한 편이나 최근 5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한국의 對 프랑스 차(홍차, 녹차) 수출금액이 241.9천 달러(약 30억 원)를 기록하면서 2020년 대비 70%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건강을 중시하는 시대 흐름과 한국식품 위상의 높아짐에 따라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한국산 차도 느리지만 건강 트렌드에 맞춰 프랑스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 차 시장에서 한국 차는 유니크함을 특징으로 질 좋은 유기농 차의 고급 이미지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한국 차는 중국, 일본 차보다 더 부드럽고 풍미가 가득한 맛과 향을 내는 특성을 가진 차로 설명된다. 현재 프랑스 유통업체 내에서 한국산 차는 대형 유통업체 팔레데떼(Palais des thés)와 마리아쥬프레흐(MARIAGE FRERES)에서 유통하는 제주녹차, 보성녹차 및 세작차, 하동 죽로차, 제주 청차(우롱차) 등이 있다.

한편, 프랑스 내 한인마트에는 녹차, 홍차 외 도라지차, 연근

우영차 등 한국의 농산품을 활용한 다양한 종류의 차가 유통되고 있으나 아직은 프랑스 내에선 생소한 편이다. 따라서 한국의 다양한 종류의 차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특화된 효능과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 팔레데떼 (Palais des thés) 와 마리아쥬프레흐 (MARIAGE FRERES) 는 프랑스 전 통적인 대표 차 유통업체 중 하나이며 프랑스 전역으로 프렌차이즈화되고 있음



‘팔레데떼’ 프렌차이즈 매장

작성자 파리지사 신예지

Key Point

미식의 나라 프랑스 국민답게 코로나19 시대 이후 맛과 질은 물론 건강에도 좋은 식품을 더욱 선호하는 트렌드에 따라 차 소비는 지속 증가할 예정이다. 천연, 인공첨가물 무첨가, 유기농 제품을 찾는 트렌드를 따라 차 시장에도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기농을 앞세운 마케팅 바람이 불고 있다. 또한 차를 하나의 예술로도 인식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외국의 차 의식, 문화 등을 배우며 프랑스 식문화에도 접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윤리환경적 소비 트렌드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100% 옥수수로 만든 친환경 삼각 티백과 같이 자연 성분의 PLA 생분해 티백 마크를 앞세운 패키징 등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마케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유럽시장에서 동등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유기농 인증마크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